

몽골 겐 건축의 공간구성과 구조적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atial Composition and Elements of Ger Architecture in Mongolia

정 건 채*

Chong, Geon Chai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attern of Ger form, inner spatial composition of Mongolian Ger house, and to take a dig at the structural or symbolic elements of nomadic architecture of Ger. To the point of view of corresponding to living and space of housing, remarkable characteristics of Ger Architecture is able to pull down and recombine the structures of nomadic house. Even though urbanization of Mongolia has spreading rapidly in a whole nation, most of people preserves traditional housing pattern within Ger. The ways of survey are to study of traditional home of Mongolia, and then field work at residence or mountain area in Ulan Bator and Gorkhi Terelj National Park area. This survey contains the form, size, structure, spatial composition of living space, structure, and materials.

There are thre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form of Ger house is like a pyramidal or crown roof style to approximate to the round shape of it. Usually they had lived in nomadic way of life, so the Ger had a movable and flexible structure. Second, the Ger is easy to build up and deconstruct to move or find a new pasture. Third, the Mongolian Ger structure is composed by mainly five elements that are Khana, Khaalga, Toono, Bagana, and Uni. It has a hierarchy of internal spaces which are classified to gender, orientation, and property.

키워드 : 몽골의 겐, 겐의 공간구성, 유트, 구조적 구성요소, 주거, 기후와 풍토

Keywords : Mongolian Ger, Spatial Composition of Ger, Yurt, Structural Elements, Housing, Climate and Endemic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¹⁾

역사적으로 몽골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1980년대까지 미수교의 상태로 있었지만, 고려고종18년 몽골의 침입과 함께 대몽항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최근에 1990년 수교이후 문화와 경제적, 특히 자원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급후,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13C 고려를 침공하던 당시에 몽골은 지구상의 반을 정복하였던 나라였을 만큼 대제국(Great Mongol State)이었다. 정복사업을 위해서, 또는 장기간의 여행을 위해서 마차위에 집을 올려 이동성을 고려한 움직이는 주거를 고안하였는데²⁾ 이는 유목민의 이동식주거생활에서 얻어진 지혜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후적으로 몽골은 냉대대륙성기후로 7월경은

20℃전후로 온난하며, 1월경은 영하 25℃전후로 내려가는 빙설기후이기도 하다. 1년 중 약 2~3개월을 제외하면 매우 춥고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농작을 한다는 것, 한 마을에서 정착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후적 여건이다. 물론 농사를 짓는 지역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형적으로 보아도 북부아시아 고원지대에 위치하므로 농경지 혹은 산림지를 형성하기 보다는 초목이 무성한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와 풍토와 지형은 정착생활보다는 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이동식생활로 고착화되어 전통적 주거양식인 겐과 유목문화(Nomadism)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유목민의 겐 주거가 부위별로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이동식구조이나 몽골의 주거유형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다. 사냥꾼들의 움집형식으로부터, 박공형목조주거, 그리고 도시주거로의 겐 등 다양하다. 현재, 농촌의 일반적 주거로 혹은 도시서민주거로, 경우에 따라 리조트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겐 하우스의 구조와 공간구성은 다소의 변형과 변용이 보일뿐 전통미와 공간적 위계성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00년 넘게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몽골의 전통주거인 겐의 건축적 구조와 공간

* 정희원,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hongeon@nsu.ac.kr)

본 연구는 남서울대학교 2013년도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와 일부임.

2) 마르코 폴로는 겐의 지역을 이동도시라고 기록했다.

구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현대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방민족인 몽골의 원초적 주거문화와 현대적 활용가능성을 조명해볼 수 있는 건축문화적 자료를 구축,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2개의 연구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각각의 연구내용과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및 자료조사연구 방법이다.

먼저 몽골의 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그 주거문화의 형성과 계승, 발전과정이 어떠한지를 문헌과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유목생활이 겐 주거에 어떻게 공간적으로 대응하여왔는지, 겐의 구조적 요소와 공간구성상의 특징, 상징적 의미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실태조사연구 방법이다.

실태조사로 몽골의 역사박물관에 전시된 1:1 겐의 모형, 도시근교지역의 일반주거인 전통적 겐, 그리고 리조트인 숙박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민박형 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겐이 갖고 있는 건축 구조적 주요구성요소, 공간구성의 원리, 원룸 안에서의 공간적 위계, 장식의 상징적 의미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겐 건축의 시공성과 이동성이 뛰어난 독특한 몽골의 전통주거인 겐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파악하였다.

조사방법은 위 2가지 방법 외에도 현지주민들과 인터뷰조사를 병행하므로 겐의 구조시스템과 공간구성 및 형태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인터뷰조사와 스틸사진촬영, 실측방법 등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조사기간은 2013년 7월 중순 1주간 진행되었다.

2. 겐의 역사와 주거 문화적 특징

2.1 겐의 기원과 변천

중앙아시아의 러시아국경과 중국국경의 내륙지역에 위치한 몽골³⁾은 현재 한반도의 약 9배정도 크기이지만 13C초 칭기스칸(Genghis Khan, 1162~1227)시대에는 50개 이상의 나라와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의 크기와 위력을 과시한 적이 있었다.⁴⁾ 당시의 몽골군대는 십진법단위로 구성, 조직적으로 정복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쉽게 이동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용이한 수레위의

겐을 고안하였을 정도로 스피드를 강조하는 이동식주거형식을 고안하였던 것이다. 몽골의 주거형식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겐(Yurt라고도 함)은 적어도 3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고 주장되고 있는데, 겐 주거형식에 관하여 역사의 아버지라 하는 그리스의 헤로도투스(Herodotus, 484~424 BC)의 주장에 따르면 주거에 관한 기록에서 북해북방과 중앙아시아지역에 주거했던 기마유목민족인 스키타이(Scythians)이 텐트와 같은 주거로 유티(Yurt)였다고 처음으로 언급하였다.⁵⁾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자료를 보면 고대이전 선사시대의 경우는 동굴 혹은 움집(Pile House)에서 거주하였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겐의 형식은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D. 4C~6C에 중앙아시아의 대평원에서 활동했던 훈족(Hun tribes)의 대표적인 주거형식이 겐이었고, 중세시대 때인 13C에는 칭기스칸 몽골부족의 허스릭 겐(Hhosig Ger, 고정식)과 첼척 겐(Tsomsog Ger)이 등장하였으며,⁶⁾ 14C에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몽골제국을 방문하였던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4?)가 이동식 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몽골사람들은 마차위에 나무와 펠트로 원형의 겐을 언지고, 4바퀴의 마차 웨건(wagon)과 같이 어디든지 이동하였다. 겐의 구조재는 기술적으로 용이하여 이동하기가 쉬었으며, 어느 때든지 조립과 해체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문은 항상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⁷⁾ 16C의 겐은 오늘날 펠트 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겐의 외벽을 덮는 에스기 토오룩탄(Esgii Tuurgatan)⁸⁾주거형식인 것이었다.⁹⁾

현대 몽골의 겐은 과거전통양식에 비해 지붕이 낮고 통이 넓어져 농촌생활이나 현대적 도시생활에도 적합하게 변형되어 왔는데, 실제로 도시주거에서 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을 불문하고¹⁰⁾ 수 천년동안 계승되어 온 겐의 주거문화와 건축적 전통미가 몽골사람들의 삶속에 얼마나 녹아들어 생활화되어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2 겐의 주거문화와 특징

훈노시대(Huns)에 있었던 겐은 거의 2500~3000년 동안 유목민족의 주거로 계승, 변형되어왔고, 지금의 몽골

5) http://en.wikipedia.org/wiki/Yurt#Buddhist_symbolism_in_the_Mongolian_Gers

6) 김형준, '몽골전통주거 게르의 공간구조와 의미에 관한 연구', pp.32~33,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4권2호(통권50호), 2012년 6월.

7) <http://mongolian-yurt.com/Yurt-history.html>

8) 에스기 토오룩탄(Esgii Tuurgatan)은 양모텐트에서 사는 사람들(Felt Dwellers)을 의미한다.

9) <http://mhnn.tistory.com/entry/몽골의-게르-옛보기-18~19>

10) 지역을 불문하고 겐의 형태가 유사하나 그 규모는 16~23m²까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Ulaanbaatar, 인구의 45%가 거주하고 있는 중심대도시)는 위도 : 47°55'17.37"N, 경도 : 106°54'20.16"E경에 위치하고 있다.

4) 東으로는 한반도와 西로는 흑해(Black Sea), 北으로는 시베리아와 南으로는 인도차이나반도까지 그 범위는 대단히 제국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의 전통주거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다. 겐(Ger, 혹은 기르라고도 부름)은 서구에서는 유트(Yurt)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어 '유르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모진(毛氈, Felt)텐트구조¹¹⁾를 취하고 있다. 반면, 시베리아 동부의 브라트(Buriat)소수민족과 몽골서부 순록을 키워가며 생활하는 에벤키족(Evenki, 몽골어로 Khamnigan)은 목조주택에서 거주하였지만 사냥할 때는 이동식 텐트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장구한 역사를 갖고 내려온 겐에는 유목생활이라는 특수성과 몽골의 냉대대륙성기후 및 풍토적 지역성에 적응하여 만들어진 주거라 볼 수 있다. 지역적 조건과 생활과 공간적 대응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 겐의 건축적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²⁾

첫째, 가벼운 구조이다.(Lightness)

둘째, 집을 짓고, 해체하기가 아주 용이하다.(Simplicity)

셋째, 유목생활에 대응, 이동성이 뛰어나다.(Nomadism)

넷째, 기후와 풍토를 고려한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갖는다.(Eco-Friendly and Sustainability)

겐은 건축재료를 모두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환기, 그리고 자연의 강한 바람과 눈보라 및 지진에도 잘 견디는 구조이다. 또한 거주자가 집안에서도 가축의 움직임이나 자연의 운행을 시각적으로

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3. 겐의 구조와 내부공간구성체계

3.1 겐의 형태

몽골의 겐은 지형적¹³⁾으로나 유목민의 생활적으로, 그리고 기후와 풍토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목민의 이동식 주거로 알려져 있는 겐이 도시정착민들에게도 주거로써 사랑받는 것은 겐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와 상징적 형태미, 그리고 원룸에서의 3~5인의 전통적 생활방식과 시공의 경제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겐의 형태는 원통형 벽체 위 콘형의 피라미드지붕 형태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북부의 추운 지역을 중심으로 북미 인디언의 티피주거(Tipi)와 같은 원추형 겐 주거 및 박공형 목조주거형태가 나타나고, 고비알타이지역과 같은 사막지역에서는 마치 베두윈(Bedouin)¹⁴⁾의 텐트형 주거와 매우 흡사한 천막주거까지 나타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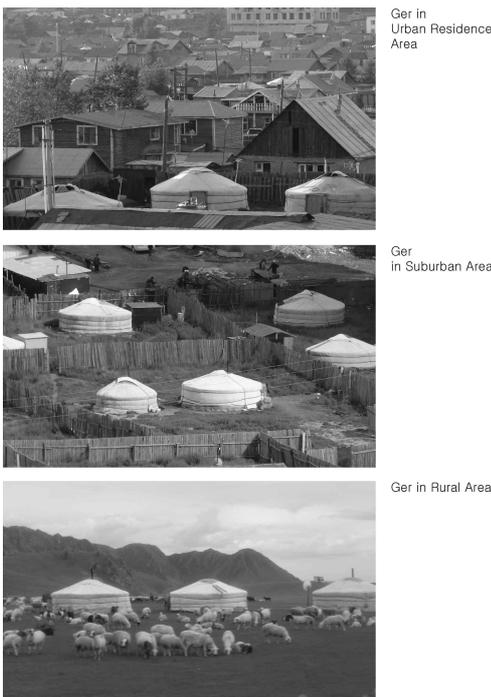


Figure 1. Types of Housing in Mongolia¹⁵⁾

이처럼 지방마다 겐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몽골인들이 일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겐의 형태는 원통형벽체위에 낮은 원추모양의 지붕형태이다. 겐의 규모와 면적은 한(Khana, 격자형 벽체)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로 16~23㎡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지만, 크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통형벽체 위 원추형지붕형식은 전통적으로 계승,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3.2 겐의 주요 구조적 구성요소

겐은 시베리아국경지방의 에벤키 소수민족의 고정식



11) 양모를 가공하여 넓은 천으로 만들어 겐의 벽과 지붕을 싸고 덮는 텐트구조로, 몽골의 기후와 풍토조건을 고려한 구조로 볼 수 있다.

12) The National Museum of Mongolia, Catalogue, supported by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Republic of Korea, p. 122, 2009. 이 내용을 참고로 필자가 본 겐의 특징을 종합하여 기술한 것이다.

13) 지형학적으로 크게 고원지대, 대초원지대(Steppe, 수목 없는 대초원), 그리고 사막지대로 분류할 수 있다.

14) 사막 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랍인, 유목민족임.

15) National Museum of Mongolia의 자료임.

목조주거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부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목생활을 위해 부재들의 무게를 가볍게 한단다가, 시공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고안되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겹을 세우고 지탱하기 위한 건축적 주요 구조적 구성요소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조사대상 겹을 중심으로 구조적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참조)¹⁶⁾

Table 1. a Present State of the Ger Surveyed

위 치	건설 년도	겹의 규모	거주자 현 황	직 업
암갈란마을 (Amgalan), 울란바토르 근교지역	2004	5한 (Khana) 약 25㎡	부부 : 2명, 아들 : 1명, 딸 : 1명, 총 : 4명	비농가, 근로자, 도시출퇴 근자 (자녀들)
실내외이미지				
외관형태		실내공간		
				

① Toono(터언)이다. 이는 일종의 겹 천장상부의 한(Khana) 중심점에 위치하여 지붕전체의 틀을 유지해주며, 원통형의 겹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요구되는 원형의 천정창틀이라 볼 수 있다. 실태조사결과 터언의 지름은 1.4m로 조사되었는데, 조사대상 가구는 5한으로 시공되었고, 터언의 지름이 커지면 그 만큼 겹의 크기가 커지며, 터언의 지름을 알면 원통형 겹의 지름을 알 수 있었다.¹⁷⁾ 즉, 1.4m(터언)은 5.6m의 원통형 겹의 지름으로 실측되었는데, 이것은 겹의 지름이 터언의 4배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늘을 신성 시 여기는 몽골인들에게 겹의 터언은 물리적 기능으로써 환기구와 채광의 통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의미로 그들의 모든 길한 복이 터언을 통해 들어온다는 토속적으로 믿음이 있기에 이를 가장 소중하게 다루며, 터언을 설치할 때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마차에 겹을 적재할 때를 보면 맨 마지막에 싣는 것이 터언일 정도로 귀하게 취급한다.

16) 울란바토 도시근교(Mongolia ulaanbaatar city. Baynzvrkh discret. Amgalan, 라밤바씨<Naranbaatar, 25세>) 겹을 케이스 스터디한 것이다. 총 4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다.

※ 실태조사에 결과, 겹의 지름은 5.6m, 지붕높이는 2.73m, 벽체 한의 높이는 1.50m, 벽체에서 터언까지 높이는 1.23m로 나타났다. 전체면적은 약 25㎡이다.

17) '4R toono = R Ger', 터언의 지름은 적어도 겹 지름의 4배와 같다. B.Bayarsaikhan, 'PUT UP a GER', p.35, 2006.

한편, 터언에 차그탁(Chahdah)이라는 홍색끈을 운의 정중앙에 걸쳐놓는데, 이것은 강풍이 불어 집이 흔들릴 때 고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홍색끈을 토속신앙의 영향으로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와 마치 식물의 생명줄기와 같은 생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② Uni(운, Rafter)이다. 운은 고정식주거의 지붕 서까래와 같은 구조적 기능을 한다. 조사대상 겹은 총 81개의 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은 지붕의 무게를 받아 벽체 한으로 전달,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실내에 노출된 운의 방사적 구조미는 공간의 아름다움과 함께 구조적 힘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 운은 터언의 고리에 하나하나 홈을 파 넣어 끼워 넣고, 격자형의 벽체에는 V자형의 한 상부에 고정시키며, 문틀(Nars)에는 홈을 파고 끼워 넣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결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¹⁸⁾ 따라서 겹의 형태는 운의 설치형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긴 막대형상의 운은 둥글지만 터언 쪽의 끝부분은 터언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사각형으로 만들며, 그 길이는 전체 길이의 30%정도이다.¹⁹⁾ 운에는 전통문양을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Bagana(바흔, Post)이다. 바흔은 터언과 운에서 발생하는 힘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며, 겹 전체의 중심을 유지해주는 지지기둥이라 할 수 있다. 집 전체의 힘을 중앙에서 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터언의 폭에 맞추어 2개의 바흔을 세워 지지하는데, 이는 겹의 중심원 상의 동서방향 점에 위치한다. 바흔의 높이와 개수를 보고서도 겹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 겹의 바흔 높이는 2.73m로 실측되었는데, 이는 한의 높이가 1.50m인 것으로 나타나, 지붕에서 겹까지의 수직높이는 1.23m임을 계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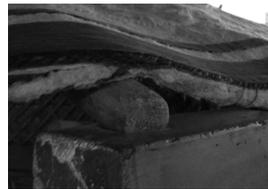
18) 운의 결구방식을 운과 한, 운과 터언, 운과 나스(문틀) 등 부위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격자형식의 벽체 한에 끼워 고정함



원형의 천장틀인 터언에 홈을 파고 끼워 넣어 고정함



각형의 문틀인 나스에 홈을 파 넣어 고정함.

19) B.Bayarsaikhan, 'PUT UP a GER', p.41, 2006.

Table 2. Major Structural Elements of Ger

주요구조부재	건축적 기능 상징적 의미	비고 (이미지)
Toono	터언은 수레바퀴처럼 생긴 하늘창이다. 지붕중심에 위치하여 환기구와 창을 기능을 담당한다. 지붕틀을 유지하는 중요한 구조재이다. 차그탁(Chahdah)이라는 홍색끈을 매달아 강풍에 견디면서도 풍요를 상징하는 줄로 여긴다.	
Uni	운은 집의 서까래와 같은 기능을 한다. 터언을 중심으로 벽체 한을 연결하여 지붕을 구성한다. 조사대상 겐의 경우 81개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부채살 모양의 방사형구조미를 나타내고 있다.	
Bagana	바혼은 터언을 지지하는 두 기둥으로 지붕과 벽체를 지탱하고 받드는 가장 중요한 구조재 중의 하나이다. 4·5·6한은 2개의 바혼을, 8·10·12한은 4개의 바혼을 사용한다. 그러나 실용적으로 1개의 바혼을 겐 정 중심점에 지지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Khana	한은 격자(格子)문양의 벽체이다. 양모를 밖으로 돌려쳐 벽을 완성한다.	
Khaalga	하득그는 나무문으로 남쪽에 설치한 출입문이다. 나스(Nars)는 문틀을 말한다. 버속(Bosgo)은 문지방이며, 전통문양을 그리거나 새겨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한(Khana, Walls)이다. 이는 격자(格子)네트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소규모는 4장짜리, 5장짜리, 중규모는 6장짜리, 대규모는 8장 이상짜리로 그 장수를 늘려가며 규모를 확장한다. 중소규모의 겐, 즉 4·5·6한은 2개의 바혼을, 8·10·12한은 4개의 바혼을 취한다.²⁰⁾ 격자형벽을 만드는 살과 각각의 살은 교차점에 바인더로 소가죽을 활용, 매듭으로 결속하여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용하였다. 한의 상부는 살과 살의 교차점에 서까래 운을 끼워, 고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며 끝을 둥글게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벽 전체를 약간 내부로 지향하도록 하여 상부의 힘을 지지하는데 유리하도록 한다. 환기를 위해서는 벽 하부를 이용, 특히 여름철에는 통기를 위해 흰색 펠트만을 개방한다. 겐의 벽이

20) B.Bayarsaikhan, 'PUT UP a GER', p.39, 2006.

무창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 외벽에 둘러쳐진 펠트를 밖에서 30~40cm길이의 각목으로 거치시키므로 펠트를 올려, 외기를 실내로 유입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⑤ 하득그(Khaalga, Door)이다. 이것은 겐의 출입문이다. 문은 항상 남향으로 설치한다. 과거에는 천으로 만들어 출입할 때는 위로 쳐들어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나무문을 사용하고 있어 개폐의 편리성과 함께 시건장치라든가 전통문양의 장식미를 더하고 있다.

출입문을 남쪽으로 내는 이유는 첫째, 겨울철의 북풍을 피하고 보온을 위해서이고, 둘째, 유목생활과 관계있는 것으로 가축들에게 시선을 때지 않기 위한 것도 해당되며, 셋째, 남향을 중시하는 토속신앙적 방향개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 겐의 하득그 높이는 인방과 문지방을 포함, 1.2m이하의 출입문을 취하고 있었다. 일반 성인이 출입하려면 고개를 숙여야만 가능한 높이이나 이는 벽체 한의 높이와 일치한다. 하득그는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한의 일부로써 상부의 하중을 담당하는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의 하득그에는 전통문양을 페인팅하거나, 새겨 넣기도 하며, 아예 무장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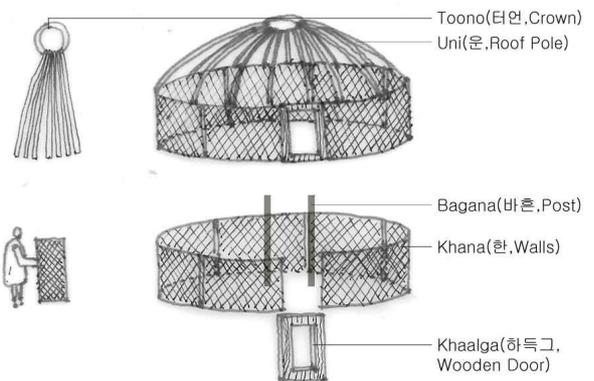


Figure 2. Main Structural Elements of Traditional Ger in Mongolia

3.3 겐의 재료와 난방방식

현대 겐의 재료는 양모대신 방수천을 사용한다든가,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매트기초를 사용하므로 전통재료보다는 시공의 편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산업 재료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통적인 겐의 주요구조부재나 바닥과 외피 등의 건축재료는 모두 자연과 생활(가축)로부터 얻어왔다. 유목생활에서 취할 수 있는 양모와 소가죽 등을 건축재료로 삼았고, 이동시 재활용하였기 때문에 100% 친환경 재료라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세계의 전통주택 역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건축시공의 주재료인 것과 마찬가지로 몽골의 겐 역시 지역성과 유목생활과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지역주의건축

(Regionalism Architecture)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요구조부재의 재료를 자연으로부터 취한다.

목재사용 부위는 터언, 운, 바흔, 한, 하득그 등 주요구조부의 재료들로 힘을 받는 부위이지만 모두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취득한 것들이다. 바닥(Shal)²¹⁾은 과거의 경우 흙을 고르게 다진 다음 자갈을 깔고 겔을 시공하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겔 바닥은 목재 널, 혹은 콘크리트매트를 원형으로 겔의 원통형보다 약 30cm넓게 시공 후, 그 위에 겔을 짓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② 외부마감재료를 유목생활로부터 취한다.

외부마감재료로 토오룩(Tuurga)은 겔의 벽체 한을 둘러치는 외피와 우르흐(Urkh)라는 원형의 천장개구부 덮개재료로 펠트로 만든 것이다. 바닥의 카펫, 바인더, 끈 등의 비내력적 요소들도 육축의 것들로 구하였다. 펠트는 흰색, 검정색, 파랑색, 갈색 등이 있으나 전통적으로 외피는 흰색을 취하였다. 그 이유는 초원에서 멀리서도 눈의 띠는 점과 흰색과 파랑색이 상징하는 사머니즘적인 관념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화목연통난로의 방사열난방방식을 취한다.

난방방식은 화목연통난로를 사용한다. 난로는 사시사철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난방뿐만 아니라 조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토머러(Tumur)라는 작은 난로를 사용하다가 겨울철에는 큰 난로로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도한다. 난방재료는 화목장작이지만 보다 구하기 쉬운 누스(Nuurs) 갈탄을 사용하는데, 이는 도심지에서는 공해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야기되고 있어 도시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갈탄에 의존하는 겔의 난방연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겔이 원통형인 것은 특히 겨울철 실내난방을 고르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난방방식으로 본 세계의 주거유형을 들여다본다면 원시 움막과 인디언 티피와 겔은 원형평면으로써 중심에 불사용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형평면이 방사열을 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4 겔의 공간구성의 원칙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원칙은 거의 동일하다. 공간배치의 원리는 향을 고려한다는 점, 남녀공간을 구분하는 위계성을 고려한다는 점,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구분한다는 점 등이다. 가구배치에도 원칙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마치 하나의 패턴으로 여겨지고 있는 공간구성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통적 공간배치와 현대적 공간배치의 유사성

전통적 공간배치와 현대적 공간배치간의 원리와 위계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후자가 좀 더 복잡하게 공간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현대적 삶과 생활패턴(가족의 특성)에 따른 공간의 대응 혹은 변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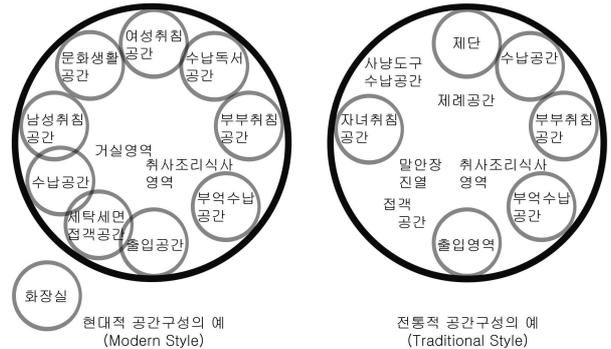


Figure 3. A Difference of Modern and Traditional Style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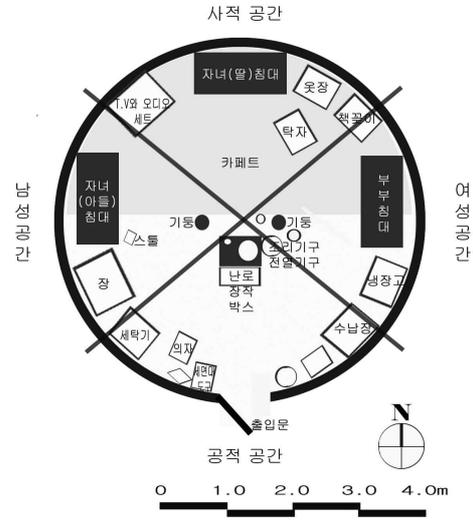


Figure 4. The Plan and Form of Modern Style Surveyed

즉, 그림3과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입구의 정 반대쪽인 북측에, 제단이 있어야 할 곳에 여성(자녀)의 취침공간을 배치하였다는 것, 제례공간과 사냥도구수납공간 및 말안장거치대 등이 있어야 할 공간에 문화생활

21) 타인의 자리에 겔을 짓는 것은 관례에서 벗어나며, 유목생활 후에 돌아오면 각자의 터에 다시 겔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22) 전통적 공간구성의 예는 몽골역사박물관내 겔의 전시모형을 조사한 것이다.

공간(T.V와 오디오시스템)으로 변용, 세탁세면·독서공간 등이 포함되었다는 것 등은 한마디로 현대생활에 공간적으로 대응한 하나의 패턴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출입구의 위치와 부부취침공간, 남성(자녀)취침공간, 부엌 및 취사·조리식사 공간 등은 거의 변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통형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간구성의 원리는 전통적 공간배치의 패턴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생활 및 자녀들의 영역을 존중하여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내부공간구성의 특징

내부공간구성상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입문은 반드시 남쪽을 향하게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입문의 남향개방은 겨울철의 추운 기후적 변화, 방목중인 육축에 대한 시야확보, 북쪽에 배치하는 제대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 남향으로 개방한다.

둘째, 원통형 원룸공간의 중심부에 설치된 2개의 기둥은 겐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기능 외에도 몽골 국기에 새겨진 소염보문자에 나타난 바흔(성벽)의 강함과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따라서 기둥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만일 통과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방문객이 통과하는 것은 결례로 여겨지고 있다.

셋째, 취침공간의 배치에서 부부침대는 동쪽에, 자녀침대는 서쪽에 배치한다.

넷째, 남성공간과 여성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남성공간은 서쪽 좌편에, 여성공간은 동쪽 우편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가사와 조리 및 식사, 부부침대의 위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출입구 왼쪽의 남성공간에는 옷장이라든가, 세면대, 의자 등을 배치하고, 접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구의 배치는 원통형의 벽에 밀착하여 배치하고, 중심부는 비워둠으로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점은 공간활용에 대한 하나의 지혜로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난방공간은 기둥 바로 밑 중심부에 접하여 배치한다. 따라서 열원이 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통형의 겐 내부 어느 곳이든지 일정하게 난방할 수 있으며, 난로는 단순히 난방용만이 아니라 취사와 조리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전기가 인입되는 겐에서는 전열 기구를 동시에 활용하기도 한다.

4. 결 론

이상에서 몽골의 전통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겐 주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주거문화의 변천과 함께 겐의 주요구조부와 공간적 구성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연구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의 겐은 3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전통주

거로 유목민의 생활과 이동식 생활에 대응하여 왔고, 북부시베리아인근지역에서는 고정식 목조주거 및 고비사막 지역은 텐트형 구조의 주거양식을 보이나, 건축적으로 보아 이동식주거로서의 지역주의 건축의 맥락에서 친환 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주거로 몽골의 기후와 풍토를 담아낸 몽골의 대표적 전통주거양식이라 말할 수 있다.

둘째, 겐의 형태는 원통형벽체 위 피라미드지붕형태를 취하고 있다. 북미인디언의 티피 주거와 선사시대의 움막과 같이 원형평면을 취하면서 불의 위치가 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원시적 특징을 유지한 채 지금까지 그 전통미를 계승해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겐의 건축적 주요구조부는 크게 5가지로 Toono(터언), Uni(운, Rafter), Bagana(바흔, Post), 한(Khana, Walls), 하득그(Khaalga, Door) 등으로 각 구성 부재를 시공하고, 해체하는 이동식 주거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유목민의 생활과 공간과 전통적 사상이 상호대응하며, 공존하여 발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겐의 공간구성은 남성공간과 여성공간,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속과 영의 공간 등이 한 공간에서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도시생활과 현대적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 제레공간의 변용이라든가, 문화공간, 위생공간 등에서 공간의 변용이 나타나나 남성과 여성, 공적과 사적, 기둥을 비롯한 상징적 공간의 위치와 위계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몽골의 겐이 수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통미를 재현하며, 현대적 공간적 기능을 재구성하여 생활주거공간 혹은 세컨더리 하우스로 이어져오고 있는 것은 역시 노매드생활과 공간적 대응 및 구조적 시스템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정건채 외, '주거론_대한건축학회 테그스크북', 기문당, 2010.
2. 김형준, '몽골전통주거 게르의 공간구조와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4권2호(통권50호), 2012년 6월.
3. B.Bayarsaikhan, 'PUT UP a GER', 2006.
4. The National Museum of Mongolia, Catalogue, supported by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Republic of Korea, 2009.
5. National Museum of Mongolia자료
6. http://en.wikipedia.org/wiki/Architecture_of_Mongolia
7. <http://mongolian-yurt.com/Yurt-history.html>
8. <http://mhnn.tistory.com/entry>

접수일자 : 2014. 1. 10
 심사완료 : 2014. 2. 20
 게재확정 : 2014. 2. 22